

돌아 보기

: 기관탐방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과 산재의 예방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조재정 연구원장을 만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원의 역할에 관해 물었습니다.

글 손은경 사진 김지원

협회의 싱크탱크로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보건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조재정 연구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85년부터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 직업훈련, 고용정책, 기획조정, 총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맡으며 기획조정실 실장과 노동정책실 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친 후에는 SK그룹의 고문과 중견기업의 총괄사장을 역임하는 등 공직과 민간기업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로기준법 행정 해석 편람」 등 2권의 저서와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Q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도 많을 듯합니다.

A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사업장의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사업과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재예방요율제도’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구축했던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도’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 제도와 사업은 지금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Q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의미와 현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1989년 중앙분석실험실로 출발하여 1993년에 산업보건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었고 지난 2003년에 산업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중앙분석실험실의 기능을 이어받아 주로 ‘분석업무’에 중점을 두고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관련 연구와 고성능기기를 이용한 시료분석을 의뢰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후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는 대한민국 산업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보건정책 및 제도 연구, 직업병 연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산업보건분야의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9년,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을 새로이 개편했습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산업보건정책연구팀, 직업환경연구팀, 건강관리연구팀, 연구기획지원파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통계자료분석, 학술제 및 세미나 개최, 협회 본부 전략과제인 통합 산업보건 프로그램 개발과 분석 매뉴얼 개정 참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Q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A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작업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감정노동자 문제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인들을 작업 현장에서 바로바로 찾아내어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업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보건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연구 등을 열심히

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산업보건 사업개발 등을 통해 협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산업보건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방안과 향후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앞서 말씀드렸듯, 산업보건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 산업과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바람이 불면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은 최소화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가 활성화됐습니다. 아울러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로 플랫폼 산업은 확산되었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증

66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보건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연구 등을 열심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9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보건 서비스 모델 연구, 산업보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및 사업 모델 연구, 사업장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관리 연구,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연구, 비제조업, 플랫폼 산업,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호 방안 연구, 산업보건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의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보건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Q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역할을 비롯하여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각 책임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A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경영계, 노동계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스스로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와 같은 민간전문단체는 정부가 제정한 법과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에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조금 가벼운 질문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살아오시면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A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인도의 철학자인 크리슈나무르티가 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학습되고 경험되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 개개인들은 자신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되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남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저는 세상과 여러 현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